

위그노 (Huguenot) ≡ 위그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다. 지금은 위그노를 배워야 할 때이다.

위그노 (프랑스어 : Hugue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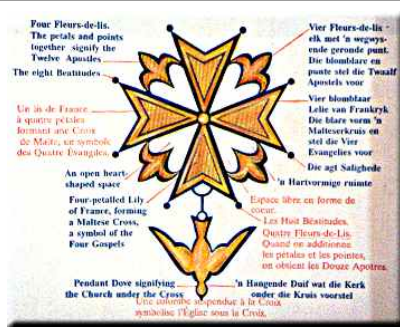
위그노는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신학을 따르는 16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가르치는 말이다.

1688년에 금세공사 매스트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위그노 십자가를 제작하였다.

위그노 십자가는 낭트 첼회 이후 박해의 시대를 견뎌내야 하는 위그노들에게 강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상징물이 되었다.

위그노의 십자가들은 지역마다 형태가 다양하지만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위그노 십자가에는 성령기사의단의 휘장과 몰타십자가의 모양이 활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 사방으로 뻗은 네 가지는 사 복음서를 나타낸다.
- 가지가 밖으로 점점 넓어지는 것은 복음의 확장과 신자의 변화를 상징한다.
- 넓어진 끝의 여덟 꼭지는 팔복을 보여 준다.
- 네 가지 사이에는 백합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한다.
- 백합의 꽃잎 세개는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 모두 열 두개의 꽃잎은 예수님의 열두 사도를 가리킨다.
- 백합 아래 빈 부분은 십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충성과 사랑을 뜻한다.
- 십자가 아래 달려있는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다. (109)

1985년경 낭트 칠회 첼회에 인쇄된 우표(좌) 위그노십자가(우)

- | |
|---|
| [1] [CGN TV] 2019-08-09 ≡ 순교의 역사 속 프랑스 교회, 현 주소는? |
| [2] [CGN TV] 2019-08-16 ≡ 프랑스 위그노에게서 배우다 ① : 성경말씀 |
| [3] [CGN TV] 2019-08-23 ≡ 프랑스 위그노에게서 배우다 ② : 예배 |
| [4] [CGN TV] 2019-08-30 ≡ 프랑스 위그노에게서 배우다 ③ : 공동체 |
| [5] [CGN TV] 2019-09-06 ≡ 위그노 정신의 후예들 ① : 미션디모데 |
| [6] [CGN TV] 2019-09-13 ≡ 위그노 정신의 후예들 ② : 미션디모데에서 배우다 |

한국교회의 미래, 위그노에게 답이 있다

위그노처럼

위그노에게 배우는 10가지 교훈

성원용 지음



위그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다!

파리 신학대학교의 성원용 목사가 25년간 수련한 위그노들의 삶과 신앙

지금은 위그노를 배워야 할 때

국민북스

위그노처럼 위그노에게 배우는 10가지 교훈 ≡

성원용 지음 | 국민북스 | 2021년 07월 12일 출간 / 17,000원 / 248쪽

■ 프랑스 개혁주의 '위그노'의 정신과 역사속에 흐르는 유산

[본 헤럴드] 최원영 발행인 / 2021.07.31.

오늘 한국 개신교의 위기를 불안스럽게 바라보면서, 뚜렷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앞에서 성원용 목사의 저서 [위그노처럼, 국민북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으면 가슴 속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신 것과 같은 힘을 얻을 것으로 본다. 위그노들의 신앙의 여정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한국개신교의 위기는 내적으로는 맘몬에 지배당하고, 외적으로는 예배의 자유와 평등권에 심각한 차별을 받으면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개신교 '위그노' 역사에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찾아보면 좋을듯싶다.

위그노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낯선 용어처럼 들려오지만, 일제시대와 공산주의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주기철목사, 손양원목사, 문준경전도사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된다.

'위그노'(Huguenots)라는 말은 '독일어 '아이트게노센'(Eidgenossen)에서 왔다. 이는 '동맹' 또는 '하나의 가르침에 의해서 연결된 동지들'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를 축약해 '아이그노트'(Eignot)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위그노'(Huguenots)가 되었다. 이것은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에 동참한 프라이부르크와 베른의 동맹에서 유래 되었고,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신학을 따르는 16

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가르치는 말이 되었다”고 한다. 위그노라는 말이 프랑스 왕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560년부터이다.

프랑스 개신교 위그노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프랑스인들의 정신속에 흐르는 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광야교회시대’, ‘위그노’, ‘위그노 십자가’, ‘레지스터’(저항하라), ‘톨레랑스’, 망치와 모루, ‘디아스포라 위그노’, ‘카미자르 정신’이다.

○ '광야교회시대'

18세기 프랑스 개신교 역사에 102년(1685-1787)은 고난과 핍박의 시기이다. 이 시기를 프랑스 교회사가들은 ‘광야교회시대’라고 부른다. 루이

14세는 1685년 낭트칙령을 폐지하였고, 폰텐블로 칙령을 발표했다. 위그노의 씨를 말릴 정도로 박해가 냉혹했다. 강제개종을 강요당했다. 거부할 경우 투옥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선에 끌려갔다. 그리고 루이 16세가 관용 칙령으로 불리는 베르사유 칙령(L'édit de Versailles, 1787.11.7.)을 선포할 때까지 102년 동안 프랑스 위그노들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1572년 8월 24일 발생한 위그노 학살 사건인 '성 바돌로매 축일 대학살' 그림이다. 이 사건으로 파리에서만 3000여명이 죽고 프랑스 전역에서 3만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1562년 프랑스 개신교회가 2000여개가 세워졌고, 200만 명의 교인은 프랑스 인구의 11%가 된다. 프랑스 개신교의 부흥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3가지 발생했다. 첫째는 바시의 학살(1562.3.1.)이다. 바시의 창고에서 예배중이던 개신교도들을 공격하여 74명을 죽이고 1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둘째는 '위그노 전쟁'이다. 앙리 4세가 '낭트칙령'(1598.4.30.)을 선포하여 개신교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때까지 37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 땅은 폐허가 되었다. 셋째는 '성 바돌로매 대학살 사건'(1572.8.24.)이다. 이 사건으로 파리에서 3,000여 명이 죽고 전국적으로 3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다.

○ "성원용 목사로부터 배우는 제자의 길"

성원용 목사는 위그노에게 배우는 10가지 핵심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 풍요가 곧 신앙의 본질이며 축복의 최고봉인 것처럼 거들먹 거리는 변질된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던져주고 있다.

● '용기를 내라'

프랑스 최초의 개신교의 시작과 최초의 개신교 총회가 한 가정집에서 시작되었다. 집주인은 르 비콩트이다. 부인과 아버지가 집 지하실을 개신교 예배 장소로 제공했다. 개신교도를 향한 박해의 칼날이 서늘퍼린 시대였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1555년에 이 집에서 프랑스 개신교 최초의 유아세례를 집례했다. 당시 개신교 목사가 없었다. 성도들은 금식과 기도를 한 후 22세 장 르 마송 드 로네(1533-1572)를 프랑스 개신교 최초의 목사로 선출하여 최초의 세례식을 집례하였다.

장 르 마송은 고위 관료 아들이었다. 아버지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법관 공부를 시켰다. 그는 종교개혁 사상에 매료되어 제네바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면서 개신교 사상을 버리라고 했다. 그는 신앙을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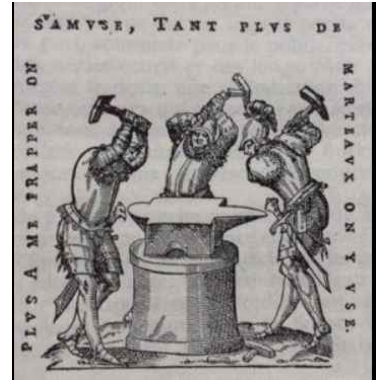
성원용목사, 파리선한장로교회 담임, 장로회신학대학교(Th.B/M.Div).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 리더십으로 박사학위 취득, 저서로 '본질을 붙들면 후회하지 않는다'

● '고난을 감당하라'

위그노의 정체성과 고난을 나타내는 상징들이 있다. 위그노 십자가, 분리형 강대상, 분리형 성찬 잔, 망치와 모루이다. 이것들은 위그노들이 박해와 광야교회 시절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졌다.

개신교인들의 집에는 항상 '위그노 십자가'가 달려 있다. 위그노 십자가는 위그노의 정체성을 담아낸 상징물이다. 그들의 십자가에 위그노의 고난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일반적인 십자가의 형태가 아니라 귀족들이 가슴에 달린 훈장과 비슷한 형태이다.

위그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망치와 모루'는 위그노들의 박해를 상징한다. 위그노들은 “망치와 모루 사이에 놓였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망치질은 위그노를 박해하는 세력을 의미하고, 위그노들은 박해받는 존재들이다. 망치와 모루 사이에 기록된 문장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 “그들이 나를 망치로 두들기면서 즐거워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망치를 닳아 없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망치로 아무리 두들겨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위그노들의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다.



망치와 모루, 위그노들의 고난을 상징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성도의 인내다. 위그노들은 용기와 인내로 결국 박해를 이기고 승리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망치와 모루 그림에서 부러진 망치와 성경책이 보인다. 박해의 망치를 부러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다.

●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라'

위그노의 망명은 1572년 8월 24일에 파리에서 발생한 성 바돌로매 대학살 사건으로 촉발했다. 더 이상 프랑스에서 개신교 신앙을 유지하며 살기 어렵게 되자. 위그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기 시작했다. 당시 프랑스 인구 1800만 명중 개신교 인구는 200만이었다. 그중에서 100만 명의 위그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땅으로 흩어졌던 것처럼, 위그노의 역사도 비슷했다. 독일로간 4만 여명의 위그노들은 베를린에서 엘리트 계층이 되었고 제조업과 기계산업을 육성하였다. 네덜란드로 간 5만 여명 위그노들은 해양 강대국을 만들었고, 영국으로 간 4만 여명의 위그노들은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었고, 스위스로 망명한 위그노들은 정밀시계산업과 금융업과 사회봉사 기관을 세웠다. 1200여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망명하여 현재 '유레이즈미업'이라는 최상급 포도주 산업을 일으켰다. 미국으로 망명한 위그노들은 예술가와 엔지니어 등 지성인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미국사회에 적응하여 지도층이 되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7명의 미국 대통령을 배출했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테 위그노의 신앙과 정신을 들고 왔다.

개신교 박해로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나면서 심각한 인재 유출로 인해 재정, 기술, 예술,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프랑스 땅에서는 가톨릭 성직자와 귀족 계급이 독주하게 되었다.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는 “폐쇄된 나라는 망하고 개방된 나라는 흥한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번영하고 거부하는 나라는 쇠퇴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필연이다.”라고 말했다. 디아스포라 위그노들을 받아들인 나라는 번영을 이루고 역사의 승자가 되었다.

● '저항하라': 카미자르 정신을 회복하라

‘저항하라’는 뜻의 ‘레지스터’(Resister)는 프랑스 개신교인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단어이다. 레지스터는 개신교 신자들의 좌우명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말이다. 레지스터의 명사형은 ‘레지스탕스’(Resistance)다. 레지스터는 20세기 중반 프랑스 위그노의 정신을 이어간 현대사의 자존심을 지켜낸 레지스탕스의 유래가 되었다. 앙드레 뒤카스는 “레지스터는 독일 나치즘과의 콜라보라시옹(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비쉬 정부의 대독 협력 정책)에 반대하는 모토이자 레지스탕스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다”고 했다.

프랑스 위그노의 상징적인 인물은 ‘마리 뒤랑’(Marie Durand, 1729.7.15.~)이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개신교 신앙으로 교육을 받으며 위그노로 성장했다. 마리 뒤랑은 1730년 7월 19살 나이에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녀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저항하면서 38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다. 감옥에서 동료들을 돌보며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 그녀를 상징하는 단어는 ‘저항하라’(레지스터·Resister)이다.

마리 뒤랑은 감옥 중심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리는 구멍 주위에 글을 새겼다. ‘저항하라’이다. “비진리에 저항하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복음을 위해 저항하라”는 말이다. 그 글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그녀는 고통스러운 삶과 카톨릭의 회유 앞

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다시 세우고 방향하는 동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 그녀가 돌에 새긴 ‘레지스테’는 이후 프랑스 개신교들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것은 개신교 신자들의 좌우명과 정체성이 되었다.

루이 14세에 의해서 개신교 예배 참석 금지된 상황에서 그녀의 집은 광야교회장소였고, 예배 참석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체포되었다.

광야교회 목사였던 오빠 뻘에르 뒤랑(1700-1732.4.2.)은 32살 나이에 몽펠리에 광장에서 공개 처형되었다. 그는 오직 진리를 선포했고, 진리대로 살았다. 마지막 교수대앞에서 큰소리로 시편을 노래했다.

재판소 서기였던 아버지 에티엔 뒤랑과 어머니도 1729년에 체포되어 14년 동안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했다.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체포되어 순교의 길을 걸었다.

위그노들은 국가와 종교 권력의 폭력앞에서 오직 신앙과 양심의 자유와 진리를 위해 기존 질서에 저항했다. 종말론적 예언 운동에 영향을 받아 위그노들은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서 무력으로 저항했다. 급진적 저항운동을 이끈 부대가 카미자르(Camisard)다. 그 이름은 그들이 입었던 카미자(Camisa)라는 옷에서 기인했다.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했던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의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 당시 독일교회는 히틀러를 메시아니즘의 도래로 이해하며 그의 광기에 협력했다. 본 회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외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바르멘 선언을 통해 독일 교회의 마지막 양심을 지켰다. 그는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며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지만 발각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국가와 종교 권력의 폭력앞에서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지키려고 저항했던 카미자르 정신은 프랑스인들의 가슴에 늘 살아 있다. 이 정신은 부패한 왕권에 맞섰던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졌고, 20세기에는 나치의 불의에 저항했던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으로 다시 살아났다. 세벤느의 카미자르 후손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세벤느 지역의 대표적인 레지스탕스였던 자크 푸졸은 이렇게 호소했다.

“세벤느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여, 반항자여, 저항자여, 그대들의 혈관 속에 카미자르의 순수한 피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라.”

● '개혁자로 서라'

종교개혁의 중심지에는 개혁자가 있다. 제1세대 종교 개혁자는 마르틴 루터이다. 1517년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곽 교회문 앞에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루터의 개혁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구원론에 방점이 있다. 루터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주장했다. 루터의 중세에 무너진 성자 신학을 완성했다.

프랑스 누아옹에서 태어난 장 칼뱅은 2세대 종교개혁자이다. 그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강조점을 두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Soli Deo Gloria)는 칼뱅 신학의 중심축이다. 칼뱅 신학은 성부 신학을 완성하였다. 칼뱅신학은 개인을 넘어 사회개혁으로 영역이 확대된다. 그는 제네바를 신정 도시로 만들려 했다.

장 칼뱅은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위한 종교개혁 완수를 위한 위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문구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이다. 개혁자로 산다는 것은 그 길을 나서기 까지 망설이고 또 망설이지만 일단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서는 순간, ‘즉각적이고 신실하게’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어 주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개혁자의 삶이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즉각적이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다.

● '톨레랑스하라'

‘톨레랑스’(Tolerance)는 ‘관용’이라는 말이며, 라틴어 ‘tolerare’에서 온 프랑스어로서 ‘참아낸다’는 뜻이다. 사전적 의미로서는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 것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장 칼뱅은 1532년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출판했다. 세네카가 네로에게 톨레랑스의 가치를 말한 것처럼 칼뱅은 프랑스 군주 프랑수아 1세에게 톨레랑스 가치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지금 이 시대는 톨레랑스가 필요한 시대이다. 왕은 새로운 물결인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받아들여 새롭게 일어난 개신교 신앙에 대해서도 관용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책을 출간하였다. 칼뱅의 책이 출판된 지 18개월 만에 프랑스 땅에서 ‘벽보사건’(1534.10.17.)의 발생으로 인해 대대적인 위그노 박해가 시작되었다. 벽보사건은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고 가톨릭교회의

미사를 비난하는 벽보가 파리 시내와 주요 도시에 붙어졌다.

앙리 4세는 개신교도로 자랐지만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왕이 될 수 없으므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앙리 4세는 낭트를 정복하고 1598년 4월 13일 개신교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낭트칙령을 선포했다. 앙리 4세는 위그노에 대한 톨레랑스를 법제화하고 그 정신을 프랑스 땅에 널리 펼치려 했지만 광신적 가톨릭교도인 프랑수아 하바이약의 칼레 심장을 찢려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앙리 4세의 손자인 루이 14세가 왕이 되면서, 할아버지가 선포했던 낭트 칙령을 1685년 10월 18일, 몽테블로 칙령을 통해서 폐지해 버렸다. 이때부터 프랑스에서는 톨레랑스는 없는 무지비한 시대가 시작되었다. 톨레랑스의 실종은 국가와 백성의 삶이 파멸해진다. 루이 14세는 위그노를 박해하고 죽이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결국 톨레랑스의 상실은 결국 프랑스 대혁명의 소용돌이가 되었다.

루이 14세의 증손자인 루이 16세는 조상들의 쌓아놓은 죄악의 과오를 짊어지고 단두대의 이슬이 되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 루이 16세는 1787년 11월 7일 ‘베르사유 칙령’이다. 이 칙령을 ‘톨레랑스 칙령’이라고도 부른다. 이 칙령의 발표로 프랑스에서는 실제적으로 관용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톨레랑스가 법이 되고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아픔을 겪었다.

다인종,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는 톨레랑스의 정신이다.



위제 알라드의 '성경의 무게'(1562년). 성경의 무게는 교황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기록한 책의 권위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장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뒤쪽에 서 있다.

● '5개 솔라(Sola)를 기억하라'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운동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을 위한 5가지 원리와 기둥은 '오직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강조했고, 칼뱅은 여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더했다. 성경은 종교개혁의 원자료이다. 성경이외의 모든 것은 보조 자료에 불과하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늘 동일한 질문을 반복한다. 왜 질문을 반복할까? 제자의 삶을 배우지 못해서 그럴까? 아니다. 우리의 성경에 대한 앎은 포화상태이다. 단지 내려놓기 실을 뿐이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그 길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좁은 길을 걷고 싶지 않은 것이다. 즐기고 누리고 적당하게 우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나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그 길을 포기하라, 그리고 위그노들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에 자신의 전부를 과감하게 던져보라. 그러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 [1일1책] 복음의 본질을 붙든 칼뱅의 후예들, 위그노

성원용 <위그노처럼>(국민북스)

[뉴스엔조이] 기자명 이은혜 기자 / 2021.07.30.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35>

약 25년간 프랑스 파송 선교사로 활동한 파리선한장로교회 성원용 목사가 쓴 책.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 끊임없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개신교 신앙을 지키고 살아 남은 위그노(Huguenots)의 흔적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다. 개신교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38년간 수감 생활을 한 마리 뒤랑, 프랑스가 낳은 개혁자 장 칼뱅 등 다양한 인물들의 여정을 담았다. 저자는 위그노의 정체성과 역사적 행보를 토대로 △저항 △디아스포라 △개혁자 △톨레랑스 △5개 솔라 등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10가지를 소개한다. 위그노들의 박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찍은 사진과 함께, 책 후반부에는 파리 곳곳에 위치한 위그노 유적지 관련 정보도 실었다. 위그노가 만들어 낸 프랑스 개신교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읽으면 좋을 책.

"나는 단순성이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정신이라고 믿는다. 어느덧 한국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복잡한 교회가 되었다. 단순한 예배당보다는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웅장한 예배당을 자랑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수많은 성도 수보다, 화려한 예배당보다, 풍부한 재정보다, 탁월한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한국교회는 생명을 걸어야 한다." ('참된 프로테스탄티즘을 추구하라', 211쪽)

"우리는 위그노를 통해서 뭔가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들의 믿음과 헌신, 불굴의 용기, 타오르는 열정, 이 땅에서 경험했던 팔복의 영성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짜릿하게 느꼈던 행복감... 21세기 첨단 문명사회를 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위그노들은 말한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잠시 가는 이 세상을 좇지 말고 영원을 추구하면서 사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부디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 안에서 행복하라', 225쪽)

■ 순교의 역사 속 프랑스 교회, 현 주소는? / 2019-08-09

<http://news.cgntv.net/player/home.cgn?c=108&v=143502&y=2019&m=08>

◀앵커멘트▶ 급변하는 세계 속, 교회와 예배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

여러 가치들로 혼돈에 빠져 있는 2019년을 사는 지금의 교회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CGN투데이에는 오랜 순교와 저항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 위그노들의 삶을 통해 그 방향성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화는 '순교의 역사 속 프랑스 교회, 현 주소는?'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알제리, 브라질, 세네갈 등 국적은 다양하지만, 기쁘게 찬양하는 얼굴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색적인 것은 자국민이 이주민들을 섬기는 형태가 아닌 이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예배라는 점입니다.

찬양인도자는 이스라엘, 중보기도인도자는 알제리에서 온 이주민입니다.

세네갈,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이주민들도 함께 예배의 문을 여는데 참여합니다.

매주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40여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뷰]다비드 목사 / 생명샘교회

교회 설립 8년 되었고 현재 신도 30~40여명인데 10개국 출신의 외국인들입니다. 저희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것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프랑스어권 지역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고요. 또한 마르세이유나 그 외 지역의 낙후된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개신교 역사는 오래됐으나 개신교인은 10%가 채 안돼 이동인구가 많은 마르세이유에서 복음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된 외국인이 고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이죠.

〈화면전환〉〈파리 복음주의교회 세례식〉

[녹취]세례식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자...

파리 라데팡스에 위치한 한 개신교 교회. 이 날은 세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시리아, 이집트 등에서 온 이주민들이

그동안의 잘못과 어려웠던 삶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침례 후 모두 함께 박수를 치고 찬양을 부르며 축하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35개국의 150~180여명이 함께 매 주 예배를 드립니다.

프랑스의 개신교회들은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매우 뿌리 깊은 나라인 만큼 10명 중 8~9명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최근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무슬림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개신교 숫자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개신교는 1~2%에 그칩니다. 그나마도 다양하게 분파가 나뉩니다.

이민자 수의 증가로 다민족 교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한인교회, 캄보디아교회와 같은 민족교회도 소수 분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유함이 넘치지만 프랑스 개신교회는 사실 억압에 맞선 지독한 '저항'의 역사입니다.

프랑스 왕정정치 기간 중 지속적으로 강한 억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1598년, 앙리 4세가 낭트칙령을 발표한 후 10여년간 뿐입니다.

[인터뷰]제라르 목사2 / 미션디모데

루이 14세가 즉위한 뒤에도 개신교도 박해는 더더욱 심해져서 거의 한 세기가량 지속됐어요. 정말 끔찍한 탄압이었죠. 루이 14세 자신이 탄압으로 프랑스 개신교는 말살되었다고 공언할 정도였죠. 그리고 누구도 개신교인이 될 권리가 없고 금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숨어 지낼 수 밖에 없을 만큼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정말 끔찍하고도 아주 잔인한 탄압과 박해로 교회 목사와 교인들, 남자와 여자, 아이들까지 위협했죠.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내 기존의 종교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1789년 인간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개신교인들은 주류 종교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개신교 정신을 유지하고, 비밀예배, 향전, 순교를 거듭하며 지하에서 믿음을 지켜 온 이들, 이들을 바로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많은 위그노들이 탄압을 못 이겨 지금의 프랑스에는 위그노 교회가 크게 약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은 프랑스개혁교회 소속인데,

이 교단은 시대의 변화에 교회가 발 맞춰가야 한다는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볼테르나 루소와 같은 계몽철학자들의 종교의 자유에서 시작됐는데.

이들 역시 핍박을 받았으나 결국 프랑스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제라르 목사 / 미션디모데

이런 사상이 결국은 승리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자유는 얻게 되었지만, 사실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왜냐하면 계몽사상은 완전히 성경 내용에 위배되니까요. 개신교에 종교의 자유는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 이 계몽철학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원죄설을 부인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도 부인하니까, 결국엔 예수를 통한 구원이 필요치 않다는 사상이예요.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주장이니까 구세주가 필요 없는거죠. 이런 사상은 종교의 자유는 가져왔지만 교회엔 큰 위협을 안겨 준거죠.

이는 프랑스 교회들이 점점 성경에서 멀어져 가고 쇠약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인터뷰]제라르 목사1 / 미션디모데

이런 사상을 조금씩 접하다보면 사람들은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엔 인본주의자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럴 때, 교회 또한 자유주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인간의 말만 무성해지죠. 그러면 교회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무너져요. 결과적으로 (자유 사상의) 이런 여파가 핍박의 시대보다 더 심한 문제를 초래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어지고요. 자유가 주어진 대신 교회가 비어가고 심지어 점점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거죠.

[인터뷰]조병수 교수3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탄압 가운데 소수가 돼 버렸고, 간신히 소수가 남아 있는 것에 독일로부터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그 교회의 신학이 파괴가 돼 버리고 마니까 수적으로도 작아지고, 질적으로도 느슨한 교회가 돼 버려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무슨 시대가 오냐면 에큐메니컬 시대라는 것이 와요... 보편주의 시대. 모든 교파를 다 연합시키고 교파뿐만 아니라 타종교와도 대화를 나누는...지금은 프랑스 안에 개신교 수가 1%... 1%도 항상 강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아직 소도시나 지방에서는 위그노 정신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일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인터뷰]제라르 목사 / 미션디모데

그러나 한편으로 ‘영적각성’도 있어요. 주님이 영적으로 일깨우셔서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 그 구원에 감동 받고, 말씀의 계시를 통해 완전히 주님께 굴복한 사람들로, 이들을 통해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거죠.

그 어느 나라보다 자유로운 신앙에서부터 그 어느 나라보다 보수적인 신앙까지 공존하는 프랑스. 이러한 가운데, 위그노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과제를 주고 있는지. 다음회부터 알아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 프랑스 위그노에게서 배우다① 성경말씀 / 2019-08-16

<http://news.cgntv.net/player/home.cgn.jsessionid=A49788B2F2FB0200600B61D5829BA041?c=100&v=143524>

◀앵커멘트▶ 500여년이라는 오랜 핍박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위그노들이 지켜 냈던 신앙과 믿음의 견딤은 놀랍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과 정신은 타협과 자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안겨줄까요. CGN투데이 기획 보도 ‘프랑스 위그노 순교의 현장을 가다’ 두 번째 순서로 알아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프랑스 가톨릭의 위그노 탄압은 세 차례에 걸친 위그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1572년 성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로 많은 위그노들이 사망하면서 격렬한 싸움과 갈등으로 확대됩니다. 앙리 4세의 낭트칙령으로 잠시 종교의 자유를 얻었으나 루이 14세가 즉위하면서 낭트칙령 폐지와 개신교 불법화, 개종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의 ‘퐁텐블로 칙령’을 내리면서 위그노들은 다시 억압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인터뷰]필립 / 세벤스 광야박물관 큐레이터

프랑스에서 개신교도는 소수지만 500년의 긴 역사가 쌓인 교파지요. 많은 기복이 있었지요, 이 광야에서 종교전쟁도 겪고 1세기 동안이나 예배가 금지됐었죠.

물론 이런 박해 속에서 외국으로 망명하거나, 개종한 위그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동굴로 피신해서라도 비밀신자로 신앙을 지킨 이들도 많았습니다.

[인터뷰]제라르 목사 / 온누리교회 불어예배 담당

박해받던 시기엔 모임 장소도 없었죠. 교회 건물, 예배당도 다 파괴당했고 목사들도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래 한밤 중에 동굴이나 ‘광야’라고 불리던 장소에 모일 수 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웃사람이 엿보고 고발하면 군인들이 찾아왔고 모두 죽임을 당했죠. 여자들은 대부분 감옥으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중노동형에 처해지고 설교자는 처형을 당했죠. 아이들은 가족한테서 떼내어졌고요. 사람들은 그런 부당함을 알면서도 그곳에 간 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것이었죠.

언제든 이동이 가능토록 한 설교 단상은 그들의 도피생활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인터뷰]제라르 목사 / 온누리교회 불어예배 담당

매번 생명을 걸고 그곳에 갔는데, 개신교도를 고발하는 사람은 대신 상금을 받았어요. 그런 고난의 시기가 100여년 지속됐죠.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핍박의 한복판에서도 지켜주신거예요. 마치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들과도 함께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핍박 속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은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실제로 위그노 여성들이 갖고 다녔다는 손바닥 반 정도의 크기도 안 되는 시편 성경들입니다.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읽기 위해 위그노 여성들의 머리 장식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위그노들에게 있어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인터뷰]제라르 목사 / 온누리교회 불어예배 담당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함이지요. 어떤 면에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광야에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예전처럼 우리를 잔인하게 박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걸 무시하는 건 사실이지요.

늦은 밤, 한 가정의 작은 불을 밝히고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막: 말씀 사모해 가정에서 몰래 읽어]

두 여성은 혹시나 누가 볼까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그노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 얼마나 심한지,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말씀을 대하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인터뷰]조병수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성경에 대한 가치성과 중요성, 거기서부터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겠다고 했다면 오늘날 같은 심각한 정도로 기독교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겠다. 위그노는 이런 성경에 강한 집착력을 갖고 모든 것을 성경에서부터 찾아내고 성경을 풀어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위그노들처럼 성경 중심의 체계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뿐 아니라 현대 기독교가 다시 한 번 활력을 찾을 수 있는...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 [CGN TV] 프랑스 위그노에게서 배우다 ② : 예배 / 2019-08-23

<http://news.cgntv.net/player/home.cgn?c=100&v=143544>

◀앵커멘트▶ 거세고 오래된 핍박 속에서도 위그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한 그들의 정신.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었는데요.

그 두 번째 정신을 CGN투데이 기획 보도 ‘프랑스 위그노 순교의 현장을 가다’ 세 번째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위그노들의 전통예배 모습이 담긴 그림입니다.

염탐과 급습에 대비해 1층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 장의 예배 모습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였고, 더 큰 예배당인 듯 보이는데 설교 단상은 비상시에 대비해 언제든 이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그림 속 위그노들의 모습은 모두 단정하고 검소해 보입니다.

[인터뷰] 조병수 교수5/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성경을 내 현장으로 가져오려면 어떤 매체가 필요한데, 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설교죠. 설교가 성경과 회중을 연결시켜주는 중대한 사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동기가 마련이 됐다. 어떻게 보게 되면 위그노들은 성경에 사활을 걸었고, 예배에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죠.

위그노들의 예배는 어느 교회나 예배 형식이 동일하고 감성주의로 가는 것을 경계해 ‘글’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예배는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에 있다’를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십계명과 사도신경, 성경낭독, 설교, 찬송, 주기도문으로 이어지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뷰] 제라르 목사/온누리교회 불어예배 담당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매일의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죠. 오늘 날의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인데,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요. 건물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사랑과 진리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 십계명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계명 앞에서 어긋난 것이 없었는가를 점검하고 회개하기 위해섭니다.
-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자신이 믿는 이가 누구인지를 재확인하고,
-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로 고백합니다.
- 찬송은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에 운율을 맞추고 곡조를 붙인 것으로 찬송을 부르다보면 시편 전체를 암송하게 됩니다.

위그노들의 모든 삶은 예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위그노들 중에는 당시 왕족과 사제 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중상공인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은 루터가 주장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셨고, 직업 자체가 소명이다’라는 만인제사장설에 크게 공감했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존 칼뱅이 주장한 검소한 생활, 단조로운 생활, 낭비를 멀리하고, 하루의 시간을 선용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예배라고 위그노들은 생각했다고 전문가들은 전합니다.

[인터뷰] 조병수 교수6/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삶의 방식 자체가 예배를 지향하는 것이죠. 돈을 벌던, 여행을 하던, 어떤 사업을 하던 모든 것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 예배가 너무나 약화가 됐죠... 실제로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돼서 설교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 삶의 지침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 것은 많이 등한시 되지 않나...

위그노들이 로마가톨릭교회와 절대군주로부터 수만명이 학살되는 등 끔찍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생명력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예배의 힘이 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인터뷰] 조병수 교수8/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위그노의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끈질긴 그런 정신이 될 수밖에 없죠. 체포를 당하거나 험한 일을 당할 때도 그들이 신앙을 잘 견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형식이 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

위그노의 후예들은 지금도 위그노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며 매년 9월 첫 주 광야박물관 앞에서 전통 위그노예배 방식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막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의 자유와 처소를 빼앗긴 채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그들의 저항을 상징합니다.

[인터뷰] 필립 / 세벤스 광야박물관 큐레이터

해마다 한번, 매해 9월 첫 번째 주일엔 박물관 바깥 마당에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모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모여든 개신교인들이 이 땅에서 박해받던 개신교의 광야시대를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그 말씀을 곧 삶으로 가져가는 위그노들의 예배
목숨을 걸게 한 그 깊은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 [CGN TV] 프랑스 위그노에게서 배우다③ : 공동체 / 2019-08-30

<http://news.cgntv.net/player/home.cgn?c=108&v=143569&y=2019&m=08>

◀앵커멘트▶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며 삶으로 살아내고자 한 위그노 정신.
이 정신들은 공동체라는 연합을 통해 더 끈끈하게, 더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CGN투데이 기획 보도 ‘프랑스 위그노 순교의 현장을 가다’ 네 번째로 소개합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잡니다.

◀리포팅▶ 웅기종기 가느다란 빛 한 줄을 의지해 모여 앉은 여인들.
이들은 함께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곳은 그림의 배경이 된 실제 공간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가는 선처럼 보이는 틈이 바로 창문입니다.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조차 없이 가느다란 빛에 의지해 모여 앉았던 위그노 여인들.
그들을 모이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프랑스 남부 중세의 성 에그모르트에 위치한 콩스탕스 탑입니다.
로마가톨릭은 위그노와 전쟁 중 발생한 포로들을 이 곳 콩스탕스 성에 가뒀습니다.
1층에 여성, 2층에는 남성을 가뒀지만 위그노들은 1층과 2층 중앙에 뚫린 구멍 사이로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박해를 견뎠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이 큰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 한 힘은 바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연결돼 있다는 마음,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주로 부르던 곡은 시편 6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고통 속에서 악인의 멸함과 의인의 기뻐함을 믿으며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제라르 목사 / 온누리교회 불어예배 담당

프랑스 교회는 과거에 박해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 속엔 언제 또 박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요. 박해가 시작되면 성경을 못 보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에 멜로디를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면 어느날 성경을 못 보게 되어도 찬송가는 외우니까 머릿 속에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겠죠. 찬송가는 물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역할도 하는거죠.

그러던 중 위그노 저항군 아브라함 마젤이 16명의 남성 위그노와 함께 탈출하면서 콩스탕스 성은 여성 위그노만 수감하는 시설이

됐습니다.

임신부나 노인, 청소년 등 탈출하기 힘든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때 신앙 공동체를 이끈 대표적인 여성이 마리 뒤랑입니다.

19세에 체포돼 57세까지 38년간 콩스탕스 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탑 안의 돌바닥에 저항하라는 글씨를 새겼고 공동체 리더로서 다른 위그노 여성들을 독려해 함께 규칙적인 기도생활을 했으며 시편 찬송을 부르며 견뎌냈습니다.

[인터뷰]조병수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프랑스위그노연구소 소장)

기존에 있는 여성 죄수들과 신규로 들어오는 여성 죄수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거예요... 성폭행, 굶어 죽거나, 패스트 전염 가능성이나 여성들이 갖고 있는 생리적 문제들이 전부다 굉장히 어려운 중에도 마리 뒤랑이라는 한 여성의 힘으로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력을 갖고 이겨나갔다 그 말이죠..

위그노들의 공동체 정신은 그들의 교회 정치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위그노 교회에는 회의가 발달했습니다.

당회, 시찰회, 연회, 노회, 지방회, 국가회, 총회 등 단계적으로 회의를 두고,

목사나 직분자들이 말씀을 잘 전하는지, 사역에 잘 집중하는지 확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조병수 교수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사님이 개척을 하거나 성도들이 개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교단에 속해있더라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뭐 교단의 간섭을 받냐... 필마로 한 마리의 말이 달려가니까 아무래도 사자나 하이에나 등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이기지 못하고 잡혀 먹히는...군마가 다녀야 해요. 군마. 맹수가 와도 군마의 세력에 맹수를 물리칠 수 있는데...

이런 공동체 정신으로 위그노들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권면하면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견뎌냈습니다.

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인터뷰]조병수 교수2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그들이 핍박과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혼자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잘하는 가, 어떻게 연합으로, 교회제도, 회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연합된 모습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이 회복이 될 수만 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의 교회들도 또 한 번 전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배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자, 조직과 체계를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 [CGN TV] 위그노 정신의 후예들① : 미션디모데 / 2019-09-06

<http://news.cgntv.net/player/home.cgn?c=108&v=143593&y=2019&m=09>

◀앵커멘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한 프랑스 위그노들의 정신은 말씀과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지난 네 번의 기획보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정신은 지금도 프랑스와 인근 국가들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기획 보도 ‘프랑스 위그노 순교의 현장을 가다’ 다섯 번째 이야기부터는 그 후예들의 삶을 소개합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잡니다.

◀리포팅▶ 세탁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여성은 미션디모데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입니다.

미션 디모데 안에 위치한 목공소입니다. 필요한 모든 목재들은 이 곳에서 얻습니다.

목공은 물론, 미션 디모데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정, 재정, 접수, 문의, 인쇄, 식자재 준비 및 요리 등.

모든 노동들은 전문 기술을 가진 집사들과 신학생은 물론 미션디모데에서 합숙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인터뷰]제라르 목사 / 온누리교회 불어예배 담당

앙뒤즈에서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주님을 섬기고 싶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묻기에, 그들을 교육시키기로 했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사역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을 돕기 위한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은 것들을 전하면 그들 스스로 더 응용을 하게 하고 제일 오래된 사람과 한 팀으로 섬기게 해요. 미션디모데에서 우선 시하는 일이지요.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섬기는 방식이에요.

노동과 서빙은 신학교 커리큘럼의 일부입니다. 절반 이상이 이런 섬김 훈련입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살아내 듯, 성실하게 노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사뮈엘 데브류/미션디모데 사역훈련생 1학년

일상의 실제 삶에서 주님이 원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특별히 정신적이거나 신학적인 것 아니라 영적이지만 구체적인 것이죠. 이곳에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선 과제 훈련기간과 작업 훈련기간이 번갈아가며 있어요. 작업은 건물증축이나 조경, 농장일 같은 거죠. 실제적인 일들로, 도움이 필요해 '쉼터'에 살게 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교차적인 훈련과정은 균형감을 키워줘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죠.

[인터뷰]욥비 조나단 /미션디모데 사역훈련생 1학년

아, 사역훈련의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거죠. 보통 섬기라는 부르심, 신학교로의 부르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죠. 이곳에 오면,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쉼터에 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걸 배우게 되죠. 사역훈련의 목적은 서로 섬기는 걸 배우는 것이에요.

삶이, 일이 곧 신앙이고 믿음임을 훈련시키는 이곳은 위그노 정신을 이어 받은 사역 공동체 '미션 디모데'입니다.

미션디모데는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거처가 없는 자 등을 위한 쉼터 사역으로

1972년 프랑스 남부 앙뒤즈에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인터뷰]제라르 목사 / 온누리교회 불어예배 담당

정확히 칼뱅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영적 대각성이 개신교의 중심지인 제네바를 거쳐 특별히 드롬 지방에서 일어났었어요. 어떤 면에선 미션디모데가 이 영적각성의 열매랄까 그 정신을 이어받았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더 이상 철학자들의 사상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겠다고 결심을 한거죠.

앙뒤즈는 본부이고, 프랑스 전역과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지에 30~40여개의 공동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터뷰]제라르 목사 /온누리교회 불어예배 담당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즉, 인간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한다고 깨달은거죠. 따라서 미션디모데도 자유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기로 한거죠.

다양한 실무를 하는 유급 집사, 음악, 설교, 행정 등 각 직임을 담당하는 목사, 숙소가 필요해 이 곳에 머물고 있는 손님,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 등이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루며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성형 목사 / 미션디모데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노숙자는 노숙자 따로, 알코올 중독자면 알코올 중독자 기관에서 그들 따로, 격리되듯이 생활하는데, 그들과 같이 한 숙소에서 4~5명이 같이 산다는 것이...

매일의 예배와 시편 찬송, 오전, 오후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참여하는 성실한 노동과 섬김이 있지만 이들의 이 모든 삶은 조용하고, 소박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유난하지도, 자랑할 만하지도 않은 당연히 함께하는 일상입니다.

[인터뷰]박성형 목사 / 미션디모데

과장을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 과장도 안 할뿐더러 예배드리는데 있어서도, 신앙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과장하지 않는 것, 소박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미션디모데를 찾는 여러 나라의 성도들은
이렇게 한 공동체로서 담담하게 말씀을 살아내는 그들의 삶을 보며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인터뷰]정재민 집사

훌륭한 프로그램도, 훌륭한 설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고독을 달래주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달래주는 것이 공동체...

[인터뷰]최희령 권사

찬양집 위에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으로 인해서 찬양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 분들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꼭 차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어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진지하게 드릴 수 있나, 굉장히 간단한 예배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진지하게 드릴 수 있나...

말 뿐인 설교, 지식으로만 채우는 말씀이 아닌 직접 몸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
위그노의 후예들이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 [CGN TV] 위그노의 후예들: 미션디모데에서 배우다② / 2019-09-13

<http://news.cgntv.net/player/home.cgn?c=108&v=143615&y=2019&m=09>

◀앵커멘트▶ 개성도, 나이도, 국적도 다른 이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용납과 하나 됨을 이뤄가고 있는 곳.
위그노 정신을 이어받아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프랑스 미션디모데입니다.
'프랑스 위그노 순교의 현장을 가다' 그 여섯 번째 순서로는 지난 회에 이어 미션디모데에게서 배울 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잡니다.

◀리포팅▶ 위그노 정신을 이어받은 미션디모데는 현 시대를 사는 교회들에게도 여러 도전을 줍니다.
프랑스 앙뒤즈에서 시작된 미션디모데는 현재 30~40곳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공동체 하나 미션디모데의 필요와 입장, 계획에 따라 세워진 곳은 없습니다.

[인터뷰]제라르 목사1 / 온누리교회 불어예배 담당

지교회가 생겨났죠. 프랑스 뿐만 아니라 스위스, 벨기에 등 외국에도 지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는 요청도 있는데요, 불가리아에서 어떤 프랑스 선교사가 본인은 더 이상 선교사를 해 나갈 수 없다며 도와달라고 찾아왔어요. 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팀이 있으면 좋겠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기도 끝에 미션디모데는 그 선교사와 함께 불가리아로 떠났고 현지 요청에 따라 최근에는 마다가스카라에도 진출했습니다. 미션디모데의 모든 지교회들은 이렇듯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 지역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필요가 만들었습니다.

[인터뷰]제라르 목사3 / 온누리교회 불어예배 담당

미션디모데는 그런 식으로 확장해갔지요. 사전계획을 세워서 이런 저런 나라에 이런 저런 일을 해야겠다고 일을 벌인 것이 전혀 아니고요,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도움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필요에 응답한 것이죠.

[인터뷰]방선기 목사/직장사역연합 대표

선교를 해도 선교 전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개척을 해도 어디에 개척해야겠다는 전략이 없어요. 이런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가서 자기들이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웃의 필요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 필요를 채우다보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션디모데는 타 교회를 배척하는 개별 교회 중심주의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미션디모데 성도들은 서로 다른 공동체를 방문해서 친교하거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어린이 대상 방학캠프나 일주일 간의 사경회 등을 통해 모든 교인들이 한 자리에 정기적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인터뷰]방선기 목사2/직장사역연합 대표

원래 초대교회는 공동체였는데, 이 교회는 그 공동체를 말로만 공동체가 아닌 실제 공동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굉장히 교류가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굉장히 연결돼 있는... 그리고 서로 대화할 때도 보면 그냥 좋은, 맛있는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려움 털어놓고 그 것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미션디모데에게서 배울 점 세 번째는 청년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청년들을 교육을 시킨 후 그들 스스로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사역에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사역의 안전성과 전통성 유지를 위해서는 오래된 기존의 사역자와 한 팀으로 서로 섬기며 사역하게 합니다.

[인터뷰]제라르 목사2 / 온누리교회 불어예배 담당

개신교회에 부족한 모습이지요. 목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자신들만이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자신의 권위에 다른 사람들을 복종케 하는 경향이 있죠. 목사들은 청년들을 데리고 있기 원하면서도 청년들을 키워주지도 않고 제일 오래된 교인이 모든 사역을 도맡아서 그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나이든 사람만 남은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죠.

이렇듯 사역의 연차와 나이, 직분과 무관하게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도전을 주고받는 것이 미션디모데의 청년 사역 방법입니다.

[인터뷰]제라르 목사/온누리교회 불어예배 담당

하나님의 선하심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통해 받은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섬겨야하죠. 이런 것이 미션디모데가 초창기부터 비전으로 지켜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션디모데

에 청년이 많은거예요. 사람들이 청년이 많아 놀랍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들을 청년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이 세대 간의 갈등을 겪지 않도록 살펴주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세대 차이를 넘어서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함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풍성한 삶이 되죠.

다양한 나라, 여러 세대의 사람이 함께 삽니다.

노숙자, 중독자 등 아픈 사람들도 더불어 사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은 용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성형 목사 / 미션디모데

저 같으면 저기까지는 안 봐줄텐데 하는 것들도 꼭 참아주는 것들을 보면서... 일종의 어려움이자 도전이었어요. 전도나 선교를 하는데 있어서 일회성, 혹은 단기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서 어떻게 아들과 접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맛보게 할 것인지 그 시각을 좀 달리하게 됐어요.

서로의 죄를 자유롭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문화도 미션디모데가 유지될 수 있게 합니다.

[인터뷰] 제라르 목사4/ 온누리교회 불어예배 담당

하나님과의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자세히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죄나 약함이나 어려움을 모두 드러내야 한다고요. 이 청년들에겐 이 조언이 아주 새로웠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를 하고, 자신의 고통이나 내면의 문제들을 치유해 줄 것을 주님께 구했죠. 그 때 자유함을 체험을 한거예요. 성경에도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죄를 고하라' 는 말씀이 있듯이, 그들 삶에 자유함이 임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다른 친구들과 나눴어요.

재정에 있어서도 함께 통용하는 사도행전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모든 헌금은 본부로 모이고, 미션디모데 전체가 관리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한국 교회에도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한충희 장로1/온누리교회OCC 공동체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고 서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초대교회 핵심적인 개념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심장을 가진다는 것으로 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기초를 다시 재발견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선교하고도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방선기 목사1/직장사역연합 대표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굉장히 성장 위주였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안된다고 하잖아요. 성장을 목표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 열매로 성장이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 볼 수 있었어요...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 위그노들의 신념, 마침내 파리에까지 개혁교회를

[크리스천 투데이] 류재광 기자 / 2009.07.06. / 프랑스 파리에서 권현익 선교사

투스상(Toussaint, 만성절)날 깔뱅(칼빈)의 친구인 니콜라 쾨이 마튀랭(Mathurins)교회에서 파리대학교 총장 취임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연설문 초안을 작성한 깔뱅은 박해를 받고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분노한 프랑수와 1세는 12월 10일 의회에 루터 이단에 대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 파리 소르본 신학부 교수진과 로마 가톨릭 고위 사제들은 그 연설문이 이단자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박해를 가하게 된다.

이때 깔뱅도 영골렘으로 피신하여 친구 루이 듀 띵에(Louis du Tillet) 집에 은신하였다가, 1534년 5월 4일 생가 느와용에 가서 사제직을 반납한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에 왕의 침실문에까지 미사를 반대하고 성직자를 비난하는 벽보가 나붙은 사건으로 개신교 핍박은 더 강해진다. 프랑수와 1세는 수백 명의 개신교들은 투옥하고, 이중 35명을 화형에 처하였으며, 깔뱅의 친형제 중 하나를 처형하였다. 그 다음해에 교황 바오로 3세에게 더욱 잘 보이기 위해 자기 영토 내의 모든 이단들을 완전 제거하겠다는 칙령을 반포한다.

깔뱅 역시 망명자가 되어 프랑스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깔뱅은 26세의 나이로 개신교의 실상을 왕에게 알리는 변증서인 <기독교 강요>(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를 1535년 8월 23일에 완성하고, 1536년 3월 바젤의 인쇄업자 토마스 플래터는 이를 출판한다.

그 후 1547년에 프랑수와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앙리 2세(Henry 2)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개혁자들에 대한 박해는 더 심해졌다. 앙리는 1551년 샤토 브리앙 칙령을 선포하여 성경과 관련된 책이나 제네바에서 출판된 책들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는 성장하고 있었다. 또한 1550년 경부터 제네바에 망명 중이던 깔뱅이 자신의 제자들을 프랑스로 보내어 부르주아 계층을 중심으로 복음 운동을 시작하면서 개혁 운동은 점차로 확산되게 된다.

이 때 깔뱅의 가르침을 따른 프랑스 개혁자들을 위그노(Huguenots)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세력은 지식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나간다.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와 같은 지식층은 개혁 운동만이 프랑스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적극 동참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그노 최대 박해자 중 하나인 앙리의 재위 중인 1555년, 파리 최초의 개신교 교회가 비스콩티(rue Visconti) 거리에 세워진다. 과거 이곳은 많은 야채(marâichère)를 재배했기에 마레 거리(rue des Marais)라 불렸다. 이 거리는 현 개신교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장소요, 개신교 교회의 요람과 같은 곳이기에 ‘작은 제네바’라 불린다.

이 거리가 개신교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장점 중 하나는 ‘이중 사법권 지역’이라는 점이었다. 23미터 길이의 이 거리 동쪽 7개의 집은 성당의 권한에 속하는 곳이었기에 개신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집을 비밀히 개방하여 교제의 장소로 사용하였다.

이 지역의 매력은 이중 사법권만이 아니다. 그 당시는 이곳에 많은 건물이 건축되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집들은 시골집이거나 시골 기와집이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강을 따라 긴 들판과 많은 초목들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파리 시내에 있는 이 좁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으나 소리는 좀체 나지 않았다.

교회의 설립은 라 페리에(La Ferriere)라는 가정에 아이가 출생하는 일로 시작된다. 당시 개신교도들은 교황청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야간에 모이고 헛간이나, 동굴 인적없는 장소에서 은밀히 예배를 드렸다. 목사가 없는 가운데서 성경공부와 예배를 위한 모임으로 가정 중심의 모임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라 페리에에는 자신의 아이가 신부가 아닌 개신교 목사에게 세례받게 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목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목사에게 세례를 요청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540km나 떨어진 제네바까지 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성례를 위해 개혁교회의 설립은 긴급한 요청이었고, 23세의 장 르 마송(Jean le Maçon)이 라 페리에의

집에서 파리 최초의 개신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교인들은 장 르 마송을 목사로 선출하고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여 교회를 조직한 후, 라페리에의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다. 이로써 파리 최초의 교회에서, 개신교 최초의 세례가 베풀어졌으며, 최초의 총회가 열린다. 이들은 극한 위험 가운데서도 사제들에 의한 미사를 거부하고 목사에 의한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모(meaux), 앙제(Angers), 루동(Loudon), 뽀와띠에(Poitiers), 그리고 아베르(Arvert) 지역 등 4개 처에도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 후에는 디에프(Dieppe), 투르(Tours) 등에도 교회가 설립되어 1559년경까지 개혁교회 수는 72개 처에 이르렀다. 또 1561년 말에는 프랑스 전역에 670 여개의 개혁교회가 설립되었다.

칼뱅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프랑스 내에서 속속히 세워지자, 제네바에 더 많은 목회자를 파송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제네바에서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맡게되자 사회 지도적 인사들도 많이 출석하게 된다.

생 제르망 데 프레 성당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은 바로 옆 비스퐁티 거리에서 열매를 맺어 개신교 교회의 요람이 된다. 이 거리의 지하실은 다른 곳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경찰의 습격에도 도주하기에 용이했다. 1685년 예배의 자유를 허락한 낭트 칙령이 취소된 후 위그노를 박해할 때에도 이곳 거리에 비밀리 총회를 갖는다.

1572년 바돌로매 대학살 때 비스퐁티 거리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필립 아구스트(Philippe Auguste) 시대의 성벽이 있는 곳에서 대부분 순교한다. 작은 제네바에 거주하던 위그노들은 세느강 쪽으로 도주하지만 이곳 문을 닫는 바람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 이곳은 프랑스 개신교의 요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에도 이곳의 개신교 역사를 알리는 표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 위그노 (나무위키)

[1] 개요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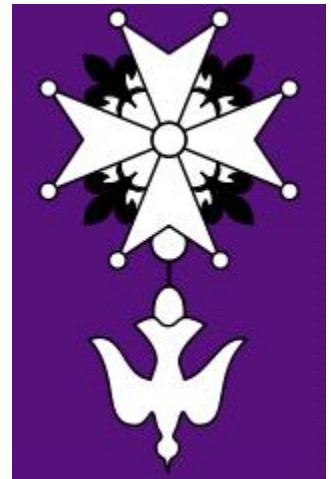
스위스 사람을 뜻하는 독일어 아이트게네테(Eidgenosse)¹⁾의 프랑스어 식 사투리인 에노(Eignot)와 제네바의 동맹당 당수 브장송 위그(Bezanson/Besançon Hugues)의 성을 합친 것으로 본래는 멸칭이었다. 루터회, 칼뱅파의 경우처럼 개신교가 그리스도교가 아니며, 개신교 지도자 개인을 추종하는 집단이라고 모욕을 주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거기에 더해 타국인을 가리키는 말을 붙여 자국민 취급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2] 역사

○ 발생

1518년 무렵 마르틴 루터의 저작이 프랑스에 전해지면서 소르본 대학의 학자들이 루터에게 공감하였다. 하지만 가톨릭에서 루터를 비난하였기 때문에 1521년 이후로는 개신교 신앙을 가진 자는 화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1523년 8월 8일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수도자 장 바리에르가 화형을 당했고, 1546년 10월 7일 피에르 르클레르 목사와 예배 참석자가 화형을 당했다.

1534년 10월 18일에는 파리, 오를레앙 등의 여러 도시에 가톨릭 교리를 비판하는 문서가 내걸리는 격문사건(affaire des placards)이 발생했다. 심지어 프랑수아 1세의 침실 문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때문에 프랑수아 1세는 격노하여 개신교 탄압 조치를 선언했으며, 많은 사람이 처형되고 망명하게 되었다. 개신교도를 밀고한 자에게는 몰수한 재산의 4분의 1을 수여하는 칙령까지 있었다. 이듬해 1월에는 출판금지령이 나와 온건한 인문주의자도 탄압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를 떠나 이웃나라 스위



1) '서약의 동지들'이란 뜻으로 스위스 성립 시기부터 내려오는 스위스인의 별칭이다. 당시 개신교의 메카인 스위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시사하는 명칭이기도 하다.

스로 망명한 종교개혁 운동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장 칼뱅이었다.

○ 칼뱅파의 영향

사실 1540년대까지는 프랑스에서도 루터회의 영향이 강했지만 점차 장 칼뱅의 영향력이 강해진다. 장 칼뱅이 제네바에서 확고한 정치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프랑스 개신교계가 제네바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제네바는 스위스 영토이지만 프랑스에 인접한 프랑스어권 도시이며 칼뱅 역시 프랑스 출신이었다. 따라서 독일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루터파보다 같은 프랑스 문화권 동네인 제네바에서 발전한 칼뱅파가 프랑스인들에게는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듯하며, 칼뱅 역시 떠난 자신의 고향 프랑스를 대상으로 선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546년, 장 칼뱅의 지도 아래 있던 제네바에서 무려 160명의 목사가 파견되어 프랑스 최초의 개혁교회가 만들어지고, 1559년에는 지하에서 신앙고백 대회가 열리며 프랑스 개신교회가 지하에서 자리잡게 된다. 개신교도는 왕권을 옹호하는 가톨릭 교회에 반발하는 대귀족, '청부(淸富)'²⁾을 옹호하는 개신교의 가르침에 호감을 받은 부르주아 상공인, 그 외 농민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범위에서 퍼져나갔다.

○ 위그노 전쟁

위그노의 세력이 커지면서 가톨릭 역시 위기감을 가져 '가톨릭 동맹'을 결성하였고, 이로 인해 발루아 왕조 치세에서 위그노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위그노 전쟁은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로 그 정점을 찍었으며 이 시기에 살아남은 위그노들은 스위스와 네덜란드를 비롯한 신교도 우세 국가들로 대거 이주하여 이후의 네덜란드 독립전쟁과 30년 전쟁에 신교도 편에서 싸우게 된다.³⁾

○ 낭트 칙령

1598년 앙리 4세가 반포한 낭트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았다. 낭트 칙령은 파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개신교도가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으며, 라 로셴의 요새에는 병력을 주둔하고 그 비용 18만 에쿠는 해마다 국왕이 지불한다. 그리고 위그노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150개의 요새를 건설할 수 있었다. 다만 위그노는 가톨릭 교회에도 십일조를 별도로 바쳐야 했다. 그래서 구교와 신교의 평화가 찾아오는듯 했으나, 이 평화는 20년을 못간다.

○ 위그노 반란

1610년 앙리 4세가 가톨릭 광신도에게 암살당하고, 메디치 가문(마리 드 메디시스)의 섭정하에서 아직 어린 루이 13세가 즉위하자 위그노의 입장은 약해졌고 차별은 여전했다. 이 때문에 로앙 공작 앙리는 저항 세력을 조직하여 1621년에 반란을 일으켰다. 국왕군은 위그노 군대의 본거지인 라 로셴을 함락시키지 못했고, 1622년의 몽펠리에 협정으로 일단 전쟁을 끝냈다.

그러나 루이 13세는 몽펠리에 협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결국 분노한 위그노는 1625년에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개신교 국가 네덜란드의 지원⁴⁾을 받은 프랑스 왕립 해군이 라 로셴 근처의 레 섬을 함락하자 1626년에 라 로셴 시와 루이 13세 간에 파리 협정이 맺어졌다. 라 로셴 시는 종교의 자유를 계속 누릴 수는 있었으나 해군 보유를 금지당했다.

1627년 영국-프랑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라 로셴의 위그노와 국왕군은 싸움을 시작했다. 직접 포위군의 총사령관을 맡은 리슐리외 추기경이 거대한 방파제를 건설하여 봉쇄한 결과, 영국 함대의 구원은 실패로 돌아갔고 식량과 물자 부족에 시달린 라

2)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느님과 돈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며 청빈(淸貧)을 강조했는데, 당연히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부르주아 상공인 계급들은 깨끗한 가난을 주장하는 청빈교리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 그런데 '칼뱅은 부지런히 일해서 번 돈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으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여 번 돈으로써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한다.'라는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센세이션한 주장, 건강한 자본주의 생각을 주창한 것이다.

3) 네덜란드의 독립 영웅 빌럼 판오라녜의 마지막 부인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때 암살당한 위그노 지도자 가스파르 드 콜리니(Gaspard de Coligny)의 딸인 루이즈 드 콜리니(Louise de Coligny)였다. 당연히 네덜란드 독립 전쟁 때 많은 수의 위그노 신도들이 네덜란드군에 입대하여 싸웠으며, 위그노 문화는 개신교의 일파인 네덜란드 개혁교회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4) 네덜란드는 종교적으로는 확고한 개신교였으나, 골수 가톨릭이었던 스페인-독일 합스부르크 정권의 격심한 박해로부터 벗어나려고 합스부르크의 제1 경쟁상대였던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도리어 프랑스 개신교도에 대한 탄압을 지원했다. 특이하게도 프랑스는 종교적으로는 가톨릭을 고수해도 외교에 있어서는 상대국의 종교를 가리지 않았다.

로셀 시는 14개월 만에 항복했다.

3번에 걸친 반란 이후에도 위그노들은 신앙의 자유만은 지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 위그노 지방이 가졌던 정치적, 군사적 자치권은 모두 사라졌다.

○ 계속되는 탄압

반란을 진압한 루이 13세와 리슐리외 추기경은 외교상의 이유로 낭트 칙령을 존중했다. 30년 전쟁 와중에 독일의 개신교 국가, 스웨덴과 동맹을 맺고 내부가 안정되려면 프랑스의 위그노들에게 온건한 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이다.⁵⁾ 그러나 1642년 리슐리외 추기경, 1643년 루이 13세가 사망하며 위그노 파는 불안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E. Labrousse에 따르면, 1649년 찰스 1세가 청교도 의회에 참수된 것이 프랑스 위그노들의 입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즉, 개신교 = 왕 살인자 라는 비난에 자기방어를 할 필요가 생겨난 것이다. 이 때문에 위그노들은 장로회를 규탄하고 왕정에 충성을 맹세했다. 프랑스 역시 외교상의 이유로 스페인과 대결하면서 영국에게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그노들을 옹호해 주었고, 1652년 프롱드의 난에서 위그노는 왕실을 지지⁶⁾하였고 왕은 여기에 감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과의 동맹이 체결되자 왕실은 다시 비타협적인 태도로 돌아서서 양보 정책을 철회했다.

프랑스 개혁교회(Eglise Réformée de France)의 전국 교회 회의는 1659년 루단에서 열린 것을 마지막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외국인 목사, 특히 제네바에서 목사 초청이 금지되었다.

1661년에서 1669년까지 여러 선언과 결정이 위그노파를 압박해갔다. 교회 밖에서 노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663년에는 개신교 장례에 대한 규제가 나타나 일몰 이후 장례식이 금지되고 참석자가 30명으로 제한되었다가 1664년에는 10명까지 억압되었다. 1669년에는 잠시 여러 법령이 무효화 되거나 완화되었으며 장례식 참석 인원 제한도 해제되었다.

교회 조직도 제한되어 토론 집회가 금지되거나, 지역 교회 회의가 왕의 고문으로부터 심의를 받게 되거나, 1663년에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편지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신교도가 높은 직무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직업 제한을 받게 되면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특히 개신교 장교들 가운데서 많은 숫자가 나타났다.

○ 드라고나드

그러나 나중에 가면 루이 14세는 개신교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는데 1681년 5월부터 왕의 직속 용기병(dragonades)들이 개신교 마을을 점령하고, 시위에서 약탈, 강간, 살인까지 하며 '왕의 희망에 따라서' 개신교도를 강제로 이단을 표기하고 가톨릭으로 개종하도록 강압했다.

3년 뒤에 1685년 제2차 드라고나드가 재개되었으며, 1685년 10월에는 많은 개신교도가 개종하거나 망명하여, 실질적으로 프랑스 내 개신교 조직은 붕괴되었다.

○ 퐁텐블로 칙령 ≡ 낭트 칙령의 폐지

1685년 루이 14세는 퐁텐블로 칙령을 반포하여 낭트 칙령을 폐지한다. 가톨릭 측에서는 "낭트 칙령은 앙리 4세의 오점이었는데, 루이 14세가 이를 수정했다."며 높은 평가를 하며 환영했다.

세계사 과목에서는 이 '낭트 칙령의 폐지'를 중요하게 외우지만, 사실 낭트 칙령의 폐지는 당시 프랑스의 시점에서는 별다른 존재감이 없는 조치였다.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전부터 루이 14세가 개신교에게 가혹한 탄압을 저질렀기 때문에 프랑스 내에서 개신교도는 숫자도 영향력도 크게 감소해서 정치적 존재감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교과서에서는 보통 '낭트 칙령의 폐지로 위그노들이 국외로 망명했다'고 가르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낭트 칙령이 폐지되기 전에 이미 루이 14세는 전혀 지키지 않고 탄압을 했으며 대다수의 위그노가 험악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국외 망명을 선택했다. 당시 시점에서 도망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도망치고, 개종할 사람은 개종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프랑스의 위그노는 '저항'조차도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했던 것이다. 따라서 낭트 칙령의 폐지는 개신교 탄압의 시작이 아닌, 오히려 탄압의 결과를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어찌되었건 낭트 칙령 폐지 이후부터 1세기동안 위그노들은 더 이상 프랑스 국민의 자격을 누릴 수 없었다. 지금도 프랑스 개

5) 프랑스 대원수의 하나였고 30년 전쟁에서 활약한 튀렌 자작 앙리 드 라 투르 도베르뉴 같은 사람도 위그노였다. 나중에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6) 프롱드의 난은 스페인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신교단에서는 1685년부터 1785년까지의 시기를 '광야'(désert) 시대로 부른다.

○ 위그노의 엑소더스

루이 14세 시기의 박해를 받은 위그노들은 프랑스를 떠나서 대대적으로 각지에 망명했다. 위그노들이 선택한 망명지는 주로 같은 유럽의 네덜란드, 프로이센 등의 개신교 국가들이었다. 위그노의 망명은 각지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의 위그노는 전성기에는 100만 명 내외로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했다. 위그노의 세력은 남부에서 컸으며, 대귀족 층과 부르주아 계층에 널리 침투했다. 망명한 위그노의 숫자는 20만에서 100여만으로 추정된다.⁷⁾

● 산업 : 대략 이하와 같은 산업들이 위그노 추방으로 타격을 받았으며, 산업기술과 자본은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등으로 유출하여 그 나라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 모직물 : 상파뉴의 스당은 북독일 지역에 모직물을 수출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위그노 제조자가 직기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다.

▷ 견직물 : 17세기 중엽 투르, 리옹에서 현저하게 발전했는데 위그노의 공헌이 컸다. 위그노들은 린넨 산업을 프랑스에 도입했는데 이 제품은 영국으로 주로 수출되었다.

▷ 제지 산업 : 오베르뉴의 종이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 교역 : 라 로셸과 보르도의 해양 교역 발전에 큰 공헌을 했으며, 낭트 칙령 직전까지 라 로셸의 무역은 위그노에게 독점 상태에 있었다.

● 금융 : 금융업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리옹의 출판업자 유구탄 가문은 1685년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여 이후 17세기 최대급 은행으로 성장했다.

● 시계 제조업 : 스위스의 시계 공업은 위그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대표적 예시가 바로 브레게다.

○ 위그노를 받아들인 나라들

▷ 네덜란드 : 독일과 다르게 칼뱅주의 위주로 종교개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망명 온 위그노들이 적응하기 매우 쉬운 편이었고, 이들을 위해 프랑스어로 예배하는 왈롱교회(Waalse kerk)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 덴마크 : 이들에 의해 감자와 레몰라드 소스가 덴마크 요리에 소개되었다. 또한 19세기 유틀란트 반도의 녹화사업을 추진했던 엔리코 달가스도 위그노 망명자 출신이다.

▷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훗날의 프로이센 왕국) : 30년 전쟁으로 경제가 파탄난 브란덴부르크의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1681년 박해 당시 위그노 망명자에게 토지세를 면제했으며, 1685년 '포츠담 칙령'으로 위그노를 보호할 것을 선언했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프로이센 왕국으로 수만명의 위그노가 안전하게 이주하도록 도왔으며, 이들에게는 특권이 보장된 집단 거주지를 마련해주었다. 18세기 초에는 베를린 인구의 1/3이 프랑스인이었을 정도였다 한다. 위그노의 후손인 프랑스계 독일인이 다수 생겨나게 된다. 위그노들은 이전에는 없던 공장들을 새로 만들어서 독일의 경제부흥에 기여했다. 프리드리히 2세는 "몇몇 지방은 이 때문에 현저하게 인구가 감소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낭트 칙령의 폐지를 후회하고 있다."고 술회했다. 2차 대전 당시 유명한 에이스인 한스 요아힘 마르세이유가 독일로 도망간 위그노의 후손 중 하나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역으로 이주한 위그노도 존재한다. 유입과 함께 와인 제조업을 들여오게 된다. 다만 이들의 후손은 안타깝게도 네덜란드계 정착민과 같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 미국 : 당시의 북미 식민지. 프랑스의 북미 식민지에는 정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하는 당시의 네덜란드 식민지나, 영국 식민지에 정착했다. 라 로셸에서 이주해온 위그노들은 현재의 뉴욕주에 마을을 만들었는데 지금의 뉴 로셸(New Rochelle)이다.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프랑스계 혈통임에도 WASP와 통혼이 가능했다.

▷ 영국 : 왕위에 오른 오펜지공 윌리엄 3세는 네덜란드의 장인과 기술자를 불러 모으면서, 프랑스의 위그노들도 적극 영입해 온다. 4만~5만명의 위그노들이 이주하며 잉글랜드 중남부에 정착했는데, 이들은 잉글랜드 방직산업과 유리 제조업을 발전시켰다.

7)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런던에는 위그노 교회가 생겼고⁸⁾ 지금도 켄터베리 대성당에선 프랑스어 예배가 있다고 한다. 프랑스계 영국인 중에는 위그노 출신이 제법 있다. 통조림을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피터 듀런드 역시 위그노 후손이다.

▷ 아일랜드 : 윌리엄 3세를 도와 아일랜드에 반란을 진압한 대가로 더블린 일대에 정착했다. 지금도 이곳엔 프랑스어로 된 지명이 많다고 한다.

○ 박해의 끝

1760년대 위그노는 약 70만 명 정도로 줄었으며, 인구의 약 2% 정도를 차지했다. 사회적 위상은 크게 악화되어서 엘리트 층에는 위그노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프랑스에 남은 위그노는 대부분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었다. 이들 중 프랑스 남부 산골짜기 세벤(Cevennes) 지방에 숨어 살던 위그노들은 카미자르(Camisards)라 불렸고, 1702년부터 1710년까지 중앙정부에 저항했다. 비록 저항은 실패로 끝났으나, 세벤 지방의 위그노들은 이후에도 깊은 산 속에 숨어 살며 힘겹게 명맥을 유지했다.

1787년 11월 7일, 루이 16세는 베르사유 칙령(The Edict of Versailles)을 발표한다. 이 칙령은 비 가톨릭 교도에게 가톨릭 교도와 동등한 시민권과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었다. 이 칙령은 '관용의 칙령'(Edict of Tolerance)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말제르브(Chrétien Guillaume de Lamoignon de Malesherbes)⁹⁾, 칼뱅파 목사이자 프랑스 위그노의 대표자 격이었던 장폴 생테티엔 목사(Jean-Paul Rabaut Saint-Étienne), 정치가이자 경제학자인 안로베르자크 튀고르(Anne-Robert-Jacques Turgot, Baron de Laune), 그리고 미국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설득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낭트 칙령의 제정, 폐지와는 달리 별다른 관심을 못 받는데 이미 프랑스 혁명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1789년, 혁명 도중에 제정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으로 위그노의 권리는 확실하게 보장받게 되었다. 1790년 12월 15일에는 종교적 이유로 추방된 모든 프랑스인과 그 후손이 프랑스로 귀국하여 스스로 프랑스 국민임을 선언한다면 프랑스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귀환권을 보장하였다. 1889년 6월 26일에는 국적법으로 이러한 조치가 미래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맨 위에 있는 위그노 십자가(Croix Huguenote)도 이때 상징으로 채택된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레지스탕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었다.

1985년 10월, 낭트 칙령 폐지 3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전 세계의 위그노 교도와 그 후손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했다.

현재에도 프랑스에서 개신교는 소수 종교이다.¹⁰⁾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8%만이 개신교도이다. 프랑스의 무슬림 수치와 거의 비슷하다. 사실 2010년대 기준으로 프랑스 개신교도들은 대부분 박해를 피해 온 흑인들이거나 이슬람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개종한 아랍계 이민자들이며, 백인 위그노의 후예들은 얼마 없다.

위그노가 8%대인 건 초기 위그노 수에 비해 적은 것은 아니다. 종교전쟁 시기에도 위그노 숫자는 10% 미만이었고, 루이 14세 때 탄압으로 공식적으로 0% 선언이었고, 18세기 루이 16세 시기엔 2%로 추정했다. 탄압을 거치면서도 버티다가 박해가 해제되어 프랑스로 다소 복귀하거나 숨긴 신앙을 선언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도 비슷한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2013년 위그노파 교회는 루터파와 합동하여 '프랑스 연합 개신교회'(Église protestante unie de France)가 되었다.

■ 위그노 (위키백과)

위그노(프랑스어: Huguenot)는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역사적으로 프랑스 칼뱅주의자들로 알려졌다. 칼뱅주의와 그것에 관련된 신앙 단체들(위그노, 청교도, 장로교와 다른 개혁 교회들)은 기독교 이론의 지속적인 장 칼뱅의 유일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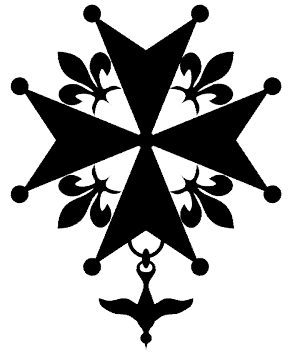
8) 지금의 소호에 있다.

9) 이 사람은 후에 루이 16세의 변호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10) 가톨릭은 50% 정도고 무신론 이신론 등 비종교인이 33% 정도이다.

을 대표한다. 신앙의 최고권을 옹호하는 과로들에 추가로 칼뱅주의는 2개의 교의들 - 인간의 노력의 관점을 암시하는 "종교로서 일생"의 독트린과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미리 예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숙명론의 독트린에 의하여 가장 두드러졌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프랭클린 D. 루스벨트를 포함한 8명의 미국의 대통령들이 의미있게 증명된 위그노 혈통을 가졌다. 추가적으로 자신의 아들 폴 리버어가 유명한 미국 독립 전쟁의 혁명가가 된 폴 리버어 1세는 위그노 계통의 미국 식민주의자였다.



● 원래 조소거리의 용어로서 이용된 "위그노"라는 이름의 기원은 불확실하게 남아있다. 그것은 "동맹"을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 "아이드게노세"(독일어: Eidgenosse)의 프랑스어 순수성 상실로 지내왔을 것이며, 아마 브장송 위그스(프랑스어: Besançon Hugues)의 이름에 언급과 함께 결합되었을 것이다. 주네브에서 위그스는 주네브의 도시 국가들과 스위스 연방 사이에 동맹에 호의를 가졌기 때문에 불려진 "동맹당"의 지도자였다. 라벨 위그노는 1560년의 앙부아즈가의 이야기에 관련된 그 공모자들에게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신청되었는데 스위스인들과 육성 관계들의 편의 영향을 가지려 하던 운동인 영향력이 있는 기즈가로부터 프랑스에서 권력을 옮기는데 좌절된 시도였다. 그러므로 위그스와 다이드게노세가 합쳐 "위그노"가 된 것이다. 하지만 O. I. A. 로세는 "위그노" 용어는 오히려 플라망어와 독일어 단어의 결합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프랑스의 플라망어 지방에서 각각 다른이들의 집에서 비밀적으로 공부하려고 모인 성서 학생들이 "하위스 헤노텐"(네덜란드어: Huis Genooten)이라고 불렸거나 스위스와 독일 국경 지역들에 모인 것들이 선서에 의하여 서로 경계를 짓는 "선서의 동료들" 혹은 "집안의 동료들"을 의미하는 "아이드 게노센"(독일어: Eid Genossen)이라고 불리었다. 프랑스어화된 "위그노"는 가끔 경시하여 쓰여 단어는 공포와 승리의 2에 반세기 동안 명예와 용기를 부여하는 상징이 되었다."

다른 학자들은 이중 언어학의 기원들을 인용하지 않으며 프랑스에서 공동으로 쓰이는 데 퍼지면서 들어가는 말이며 프랑스어에서 기원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그스의 가설은 그 이름이 종교 개혁 시기 이전에 오랫동안 다스린 프랑스의 국왕 위그 카페와 연결에 의하여 밝혀질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갈리아주의자와 개신교도들에 의하여 사람들의 존엄과 일생들을 존중한 귀족으로서 여겨졌다. 재닛 그레이와 이론의 다른 후원자들은 "huguenote"라는 이름이 "휴고를 위한 자들"로 거칠게 동등할 것이라고 암시한다.

경멸적인 어원은 기원이 "les guenon de Hus"(얀 후스의 원숭이 혹은 유인원)의 뜻을 가진 속어를 암시하는 편이다.

○ 초기 역사와 믿음들

지방적 언어에서 성서의 가능성은 프랑스에서 개신교 운동의 퍼짐과 개혁 교회의 개발에 중요하였고, 국가는 개신교 개혁이 결국 도착할 시기에 교황권과 분투의 장기적 역사를 가졌다. 1294년 경에 성서의 프랑스어 판은 로마 가톨릭 성직자 기야르 드 물랭에 의하여 준비되었다. 처음으로 알려진 성서의 프로방스어 번역은 12세기의 종교적 과격론자 피에르 드 보(피터 발도)에 의하여 준비되어 왔다. 그 파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하여 억압된 지 오랜 후에 남아있던 발도파들은 윌리엄 패럴과 개신교 개혁 운동에 가입하는 데 추구하였고, 올리베 산파는 그들을 위하여 프랑스어 성서를 출간하려고 했으나 비밀로부터 나타난 이들은 1545년 프랑수아 1세에 의하여 박멸 당하였다. 이 번역의 2절판은 1488년 파리에서 나왔다.

개혁 교회들의 전임 교회들은 개혁 찬성가와 자크 르페브르 같은 갈리아주의 가톨릭 교회들을 포함한다. 갈리아주의자들은 잠시 프랑스의 종교가 외국의 권력인 로마 주교의 통치될 수 없는 원칙에 프랑스 교회를 위한 독립을 이루었다. 종교 개혁 시기에 파리 대학교의 교수 르페브르는 1523년 신약성서의 프랑스어 번역의 출간과 함께 프랑스에서 루터파의 아이디어들의 재빠른 보급을 위한 방향을 준비하였으며, 1528년 프랑스에서 성경 전체에 의하여 따라졌다. 윌리엄 패럴은 스위스 개혁의 지도자가 되려 간 르페브르의 학생이었으며, 주네브에서 개신교 정부를 설립하였다. 파리 대학교의 다른 학생 장 칼뱅도 또한 개신교로 개종하였다. 1599년의 프랑스의 신앙 자백은 결정적으로 칼뱅파의 영향을 보인다. 1550년과 1580년 사이에 어떤 때 프랑스에서 개혁 교회의 교인들은 "위그노"로 공동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판들

그 전부를 위로 위그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특히 의식에 전념과 사망과 고인과 함께 망상으로 보인 상연으로서 자신들의 예배의 열렬한 비판들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의식, 이미지, 성인, 순례 여행, 기도식와 가톨릭 교회의 계급 조직들이 구원을 향하는 아무도 돕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성서적 엄격하고 믿음이 깊은 인생, 법률들로 복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위한 감사의 외부에 표현되는 것으로서 보았다.

당시 다른 개신교같이 그들은 로마 교회는 그 불순들의 근본적인 죄를 씻어야 하고, 교황은 하나님의 것들에 조롱하는 포악에 얽혀진 세계적인 왕국을 대표한 것처럼 느껴졌고, 최후적으로 유죄로 판정하였다. 이 처럼 수사학은 사건들이 펼쳐지면서 맹렬해지고, 가톨릭 설립의 적대 행위를 일으켰다.

가톨릭 교회에 폭력적으로 반대한 위그노들은 우상, 수도원 생활과 교회 건물들을 공격하였다. 위그노들이 보류를 얻은 도시들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제단과 우상들, 그리고 어찌다 교회 건물 자신들이 부서진 우상 파괴의 공격들을 보았다. 부르주, 몽토방과 오를레앙 같은 도시들은 이 관련에 실질적인 활동을 보았다.

○ 개혁과 증대

위그노들은 종교 개혁의 착수로부터 시대적 박해를 향하였으나 프랑수아 1세는 시초적으로 그들의 시험을 위하여 디자인된 국회의 법령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였다. 1534년 계시의 사건은 위그노를 향한 국왕의 자세를 바꾸었으며, 그는 운동의 금지된 착수로부터 걸어가 버렸다.

위그노의 수들은 1555년과 1562년 사이에 재빠르게 증대하였으며, 주로 귀족들과 도시 거주자들 중에 자라났다. 이 시기 동안 그들의 반대자들은 처음에 개신교도 위그노로 불렀으나 그들은 자신들을 "개혁자"로 불렀다. 그들은 파리에서 1558년 차신들의 첫 국가적 종교 회의를 결성하였다.

1562년으로 봐서 위그노의 측정된 수는 1백만 명을 통과하여 주로 국가의 남부와 중부 지역들에 집중되었다.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은 있음직하게 대략 2백만 명으로 절정에 이르러 같은 시기 동안 대략 1천 6백만 명의 가톨릭 교도들에 비교되었다.

신교의 자유의 양요와 칙령들이 더욱 자유적으로 되었던 동시에 위그노 영향의 증대와 개신교 열성의 전술한 단계에 반응에서 그들을 향한 가톨릭 교도들의 폭력이 자라났다.

1561년 예를 들어 오를레앙 칙령은 박해로 종말을 선언하였고, 생제르맹 칙령은 1562년 1월 17일 처음으로 그들을 인정하였으나 이 대책들은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관계들의 자라나는 변형을 변장시켰다.

○ 내전

8개의 내전들로 이끈 긴박 상태들은 1562년과 1598년 사이에 관계 평온의 시기들에 의하여 방해되었다. 평화에 각각의 휴식과 함께 가톨릭 왕위에 위그노의 신임은 감소되었고, 폭력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개신교의 요구들은 1598년 오래가는 관대한 휴전이 결국적으로 일어날 때까지 더욱 위대해졌다.

내전들은 차차 왕가의 인물에 대결하였고, 종교적 전망들의 경쟁을 보유하는 데 추가로 프랑스 왕위로 평온을 걷은 부르봉과 기즈 양 왕가 사이에 연장된 불화로 들어가 발전하였다. 발루아 왕가에 의하여 영유된 왕위는 정통적으로 가톨릭의 편을 성원하였으나 때때로 정치적으로 편리할 때 개신교 주의로 바꾸었다.

○ 프랑스의 종교 전쟁

프랑스의 종교 전쟁이 위그노들의 23명이 살해되고 대략 200명이 상처를 입은 1562년 3월 1일 바지에서 일어난 학살과 함께 시작되었다.

위그노들은 자신들을 곧 후에 정의적인 정치적 운동으로 변형시켰다. 개신교 설교자들은 숙고적인 군인과 가스파르 2세 드 콜리니 대장의 지도 아래 온 무시무시한 기마대들을 다시 불러모았다. 나바라의 앙리와 부르봉 왕가는 자신들을 위그노들에게 동맹시켜 60개의 강화된 도시들로 절정이 자라난 개신교의 위력으로 재산과 소유권들을 추가하였고, 다음 3개의 10년간 세월에 가톨릭 왕위와 파리로 심각한 위협들을 취하였다.

○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1572년 8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로 알려진 사건에서 카톨릭 교도들이 파리에서 수천명의 위그노들을 살해하였다. 이어진 몇주에 다른 타운들에서 비슷한 학살이 일어나 사상자의 추정들이 다시 난폭하게 줄을 지어 수천 명에서 1백 1십만명 만큼 높이 자라났다. 1573년에 승인된 사면은 범인들을 면제하였다.

○ 낭트 칙령

위그노를 상대로 5번째 전쟁이 1574년 2월 23일에 시작되었다. 분쟁은 나바라의 앙리가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앙리 4세로서 프랑스의 국왕이 되어 낭트 칙령을 선포한 1598년까지 정기적으로 지속되었다. 칙령은 왕위 아래 가톨릭 교도들과 개신교도들의 동등권, 그리고 자신들의 범위들 안에서 종교적과 정치적 자유의 신분을 승인하였다. 칙령은 동시에 가톨릭이 통치하는 지방들에서 새로운 개신교회들의 창립을 낙담시키면서 가톨릭의 이익들을 보호하였다.

낭트 칙령의 선언과 함께 다음의 위그노의 권리들의 보호는 식민지의 건설에 더욱 나가서의 시도로서 프랑스를 감소된 것으로 놔두는 데 압력을 놓았다. 하지만 루이 14세 아래 최고 장관 질 마자랭 추기경은 개신교도들의 박해를 다시 시작하여 많은 이들이 달아난 생활을 가장 참을 수 없게 만든 무력 박해를 가하는 데 군인들을 이용하였다.

○ 퐁텐블로 칙령

루이 14세는 1685년 취소할 수 없는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퐁텐블로 칙령과 함께 개신교가 불법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후에 다수의 위그노들이 둘러싸인 개신교 국가들 -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위스와 덴마크, 그리고 칼뱅파의 브란덴부르크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선제후가 자신의 전쟁으로 파괴되고 인구가 감소된 국가를 재건하는 도움을 주는 데 자신들을 환영한 프로이센으로 달아났다. 프랑스의 위그노 인구는 1660년대에 8십 5만 6천명으로 떨어져 대다수가 시골 지역에 살았다. 생존한 위그노들의 거대한 인구들은 푸아투 같은 지방들에 거주하였다.

○ 위그노들의 프랑스 출국

▷ 초기 이주 ≡ 박해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데 프랑스를 처음으로 떠난 위그노들은 1562년 장 리보의 지도 아래 매우 일찍이 떠났다. 단체는 오늘날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속하는 세인트존스 강의 독에 1564년 포트캐롤라인의 작은 식민지를 설립하고 말았다. 식민지는 오늘날 미국에서 아무 영구적 유럽인의 정착에 첫 시도였으나 단체는 짧은 시간만을 생존하였다. 1565년 9월 세인트오거스틴에 있는 새로운 스페인의 식민지 공격이 역발하였고, 스페인은 포트캐롤라인 수비대를 전멸하였다.

▷ 남아프리카에 정착 ≡ 1687년 12월 31일 위그노들의 단체가 프랑스에서 남아프리카 케이프 오브 고틀호프에 있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 향해하였다. 프랑수아 비용의 도착과 함께 어떤 개인적 위그노들은 1671년만큼 일찍이 케이프 오브 고틀호프에 정착하였고, 그곳으로 위그노들의 결성되고 큰 규모의 이주는 1688년과 1689년 동안 일어났다. 이것의 주목할 만한 예는 프로방스에 있는 라모트데그에서 온 위그노들의 이주이다. 이 많은 정착자들은 오늘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에 있는 프란슈후크(네덜란드어로 프랑스인의 모퉁이를 의미함)라고 불리는 지역을 자신들의 집으로서 선택하였다. 남아프리카에서 위그노들의 도착을 기념하는 큰 기념비는 1948년 4월 7일 프란슈후크에서 개시되었다.

웨스턴케이프주에 있는 많은 농장들은 아직도 프랑스식 이름을 지니었고, 성들이 자신들의 프랑스 위그노 혈통으로 증거를 지니어 오늘날 대부분 아프리카너어를 쓰는 많은 가족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성들은 Blignaut, de Klerk (Le Clercq), de Villiers, Visagie (Visage), du Plessis, du Toit, Fourie, Giliomee (Guillaume), Hugo, Joubert, Labuschagne (la Buscagne), le Roux, Malan, Malherbe, Marais, Theron, Jordaan (Jurdan)과 Viljoen (Villon) 등을 포함하는 데 전부 오늘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공통적 성들이다. 남아프리카에서 포도주 산업은 많은 이들이 프랑스에서 포도원들을 가진 위그노들에게 의미있는 빛을 지었다.

▷ 북아메리카에 정착 ≡ 뉴프랑스에 정착으로부터 쫓겨난 많은 위그노들은 후에 오늘날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합병하여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의 13개의 식민지들로 들어간 뉴네덜란드의 네덜란드 식민지로 대신 이동하였다. 위그노 이민자들은 뉴욕주 뉴팔츠를 창립하였다. 다른 위그노 정착지는 1692년 대니얼 페린에 의하여 창립된 스테튼 아일랜드의 남부 기슭에 설립되었다. 오늘날

위그노의 이웃은 페린과 그 초기 정착자들의 이름을 따다.

어떤 정착자들은 버지니아 식민지를 선택하고, 자신들의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한 다운타운 리치먼드에서 서쪽으로 대략 20 마일이나 되는 포화탄 군에 현재 위치하면서 포기된 모나칸족의 마을 매나킨타운과 오늘날의 체스터필드 군에 공동체들을 형성하였다. 1705년 5월 2일 버지니아 총회는 매나킨타운에서 148명의 위그노 거주민들을 귀화시키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많은 위그노들은 또한 오늘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대지 주위의 지역에 정착하기도 하였다. 1685년 프랑스 풍에서 온 엘리 프리올로는 당시 찰스타운이라고 불리던 곳에 정착하였다. 그는 그 도시에서 북아메리카 최초의 위그노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북아메리카에서 대부분의 위그노 집회들은 미국 장로교회, 미국 그리스도 연합 교회와 개혁신교 같은 다른 개신교 교파들과 합병 또는 제휴하였다.

아메리카에서 위그노들은 가끔 자신들의 가까운 프랑스 위그노 공동체들의 외부에서 결혼하여 재빠른 융합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특히 식민지 시기 후반과 연방 시기 초기에 상인들과 장인들 같은 미국의 경제적 생활에 막대한 공헌을 이루었다. 하나의 뛰어난 공헌은 앙투안 라부아지에의 전 학생 E. I. 뒤펀트에 의한 브랜디와인 화약 공장의 설립이었다.

▷ 네덜란드에 있는 보호소 ≡ 프랑스 위그노들은 네덜란드 반란의 첫 세월 동안 이미 스페인에 대항하는 네덜란드인들 사이에 싸웠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빠르게 위그노들을 위한 선택의 망명 피난처가 되었다. 초기의 인연들은 이미 빌럼 1세 판 오라녜의 사지에서 눈에 띄어 스페인의 종교 재판관을 비난하여 자신의 궁정의 목사 피에르 로루아슬뢰르에 의하여 썩었다.

살해된 가스파르 2세 콜리니의 누이 루이즈 드 콜리니는 칼뱅파 네덜란드 반란의 지도자 빌럼 1세 판 오라녜와 결혼하였다. 둘 다 매일 프랑스어를 쓰면서 텔프트에 있는 그들의 프린센호프 궁정 교회는 아직도 오늘날까지 지속된 예배식인 프랑스어를 쓰는 칼뱅파 예배를 마련하고 있었다. 프린센호프는 오늘날 남아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활동적인 왈롱어 교회들 중의 하나이다.

위그노들과 네덜란드 공화국의 군사적과 정치적 지도력 오라녜나사우가 사이에 이 매우 초기의 인연들은 남아프리카에서 케이프 오브 굿호프 주위에 네덜란드 공화국의 식민지들과 아메리카에서 뉴네덜란드에서 많은 위그노들의 초기 정착자들을 설명한다.

후에 잉글랜드의 국왕이 된 빌럼 3세 총독은 1672년 루이 14세의 네덜란드 공격이 일어난 후 루이의 최강의 반대자로서 나타났다. 그는 주요 반대 연정으로서 아우구스부르크 연맹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로서 많은 위그노들은 칼뱅주의 네덜란드 공화국을 부유하고, 낭트 칙령의 폐지 후에 망명을 위한 가장 흥미를 돋우는 국가로서 보았다. 그들은 또한 거기에 더욱 많은 프랑스어를 쓰는 칼뱅파 교회들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낭트 칙령의 폐지 후에 측량된 75,000명에서 10,000명과 함께 위그노 난민들의 가장 큰 단체를 받았다. 그들 중에 200명은 목사들이었다. 이 일은 큰 유입이었고, 네덜란드 공화국의 전체 인구는 당시 대략 2백만명으로 이르렀다. 1700년 경에 암스테르담 인구의 25 퍼센트 가까이 위그노들이었다고 측량되었다. 암스테르담과 서프리트란트의 지역은 1705년 위그노들에게 전임적인 시민권을 마련하는 데 첫 지역들이었고, 1715년 전체 네덜란드 공화국에 의하여 이어졌다. 위그노들은 착수로 부터 네덜란드인들과 결혼하였다.

네덜란드의 가장 현저한 위그노 난민들 중의 하나는 피에르 바일로 자신의 다권의 저작 〈역사적과 비판적 사전〉을 펴내는 동안 로테르담에서 교사일을 시작하였다. 이 작문들은 미국 의회도서관의 첫 수집을 형성한 100권의 기초적인 교과서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네덜란드에서 대부분의 위그노 후손들은 전형적인 네덜란드인의 성과 함께 프랑스인의 성들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다. 네덜란드 반란의 지도력과 반란에서 참가 마저와 함께 그들의 초기 인연들의 이유로 네덜란드의 참가의 일부들은 위그노 후손들이다. 1815년 후에 네덜란드가 오라녜나사우가 아래 왕정이 될 때 어떤 위그노 가족들은 귀족적인 속성과 마련되어 왔다.

▷ 영국과 아일랜드에 있는 보호소

대략 10,000명이 아일랜드로 이주하면서 측량된 50,000명의 개신교 왈롱인과 위그노들이 잉글랜드로 달아났다. 지도적인 위그노 이론자이자 런던에서 망명자들의 공동체를 지도한 앤드루 로티는 교황청의 명확한 위그노 비판과 변질로 알려지게 되었다.

켄트 해안에 상륙한 이 난민들 중에 당시 켄트주의 중심지이자 많은 왈롱인과 위그노 가족들이 보호소를 승인받은 캔터베리를 향하였다. 에드워드 6세는 그들에게 예배를 위하여 캔터베리 대성당의 서쪽 토굴을 허락하였다. 1825년 이 특권은 남쪽 측량으로, 그리고 1895년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아직도 프랑스에서 예배식이 열리는 흑왕자의 전 소예배당으로 축소되었다. 캔터베리에서

왈롱인과 위그노들의 다른 증거는 강의 옆으로 목골로 된 직조공들의 주택과 그들의 미망인들이 맨릿층에서 생존한 터나게인 레인에 위치한 주택의 블록을 포함한다. 피난민 공동체의 많은 이들은 직조공들이었으나 자연적으로 지역 고유의 인구로부터 공동체의 우수성을 지탱하는 데 어떤 이들은 필요적으로 다른 직업들을 실행하여 이 갈라짐은 도시에서 그들의 시초적 수납의 상태로 지내었다. 그들은 켄트주의 다른 곳에도 정착하였는 데 주로 난민들의 교회들이 되는 데 이용된 타운들 - 샌드위치, 페이버섬과 매드스톤에 정착하였다.

위그노 난민들은 큰 수에 런던의 쇼어디치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스피털필즈와 그 주위, 그리고 윈즈워스에 주요 직조공 산업을 설립하였다. 당시 블랙 이글 양조로 알려졌던 올드 트루먼 양조가 1724년에 나왔다. 프랑스 투르에서 온 위그노 난민들은 그들이 지은 거대한 비단 제재소를 사실상 없애버렸다.

아일랜드에 식민 건설이 있는 동안 많은 위그노들이 아일랜드에 정착하였다. 위그노 연대들은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윌리엄 왕 전쟁에서 윌리엄 3세를 위하여 싸운 덕분에 그들이 대지의 승인들과 칭호와 함께 수여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은 더블린에 정착하였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실력들을 얼스터로 가져가 아일랜드의 리넨 산업의 창립에서 보조하였다.

▷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위그노 난민들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루터교와 개혁교회의 국가들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 거의 4만 4천 명에 가까운 위그노들이 독일, 특히 그들의 많은 후손들이 탁월의 지위들로 올라간 프로이센에 자신들을 설립하였다. 프레데리시아, 베를린, 함부르크, 스톡홀름과 엠덴 같은 몇몇의 조합교회들이 창립되었다. 1700년 경에 베를린의 인구의 중요한 균형은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쓰고, 베를린의 위그노들은 한 세기 가까이 자신들의 종교적 예배에서 프랑스어를 보존하였다. 그들은 최후적으로 1806년 혹은 1807년 경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의한 프로이센 점령에 항의에서 독일어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 영향들

프랑스로부터 위그노들의 출국은 세월들 동안에 왕국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일종의 "두뇌 유출"을 창조하였다. 뉴프랑스에 개신교도들이 정착하는 것을 허락한 것에 프랑스 왕후의 거절은 1763년 최후적으로 영국에 의한 정복으로 이끈 식민지의 느린 인구 증대의 뒤로 요인이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일어난 시간으로 봐서 뉴프랑스에 있던 수보다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프랑스계의 주민들이 더 많이 살아온 것으로 나와있다.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자신의 왕국에 정착하는 데 위그노들을 초청하였고, 그들의 후손들 중에 다수는 프로이센에서 탁월의 지위들로 올라갔다. 동독의 마지막 수상 로타어 드 메지에르는 위그노 가족의 자손이다.

위그노들의 박해와 도주는 해외, 특히 잉글랜드에서 루이 14세의 평판을 거대하게 손해를 입혔는 데 1685년에 대비하여 평화로운 관계들을 즐기던 이 2개의 왕국은 쓰라린 원수들이 되었으며 1789년 전방으로부터 전쟁의 일선에서 서로 싸웠다.

1724년 후에 개신교도들의 박해는 프랑스에서 지속되었으나 1764년에 끝나고, 프랑스 대혁명은 결국 그들을 완전히 자라난 시민들로 만들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프랑스 점령이 있는 동안 자신들이 박해되지 않은 개신교도들의 의미 있는 활동은 유대인들을 숨기고 구하는 것이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역사의 이유로 많은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다양한 상황과 논쟁들에서 "희생자"를 위한 특별한 동정과 그들을 후원하는 경향을 느끼는 편이다.